

통일 신라와 발해

통일 신라는 삼국의 미술 문화를 수용하고 당과 교류하며, 사실적이고 이상적인 불교 미술품을 다수 제작하였다. 주요 유물로는 석굴암, 불국사, 성덕 대왕 신종 등이 있다.

발해는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남아 있는 유물 조각의 크기로 보아 크고 화려한 미술품을 다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유물로는 묘지문과 벽화가 새겨진 정효 공주 묘, 상상 속 동물을 생생하게 표현한 용머리상 등이 있다.



통일 신라 석굴암은 토함산에 만든 인공 석굴로, 그 속에는 불교 미술의 이상으로 손꼽히는 본존상을 비롯하여 석가 여래상과 40여 구의 불상 조각이 담겼다. 석굴암 본존상(화강암/높이 약 326cm/751~774년)



통일 신라 경주의 '김유신 묘'라고 전해지는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십이지 중 해(亥)에 해당하는 돼지상이다. 머리는 돼지, 몸은 사람으로 갑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무인의 모습이다. 십이지신상(부분/납석/높이 1.2m/7세기 후반)



통일 신라 황복사지 금제 여래 입상 (동합금, 순금/높이 14cm/706년)



통일 신라 경주 불국사 다보탑(화강암/높이 10.29m/8세기 중반)



통일 신라 성덕왕을 기리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일명 '에밀레 종'이라 불린다. 성덕 대왕 신종(청동/높이 375cm, 지름 227cm/771년)

통일 신라 경주 불국사(751~774년)



발해 악귀를 쫓기 위해 건물에 장식한 돌 조각이다. 용머리상(화강암/높이 37cm/8~10세기)



발해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닌 지붕 장식이다. 치미(흙/높이 91cm/8~9세기)